

동남아시아 총대주교대리구의
거룩한 주교들과 성직자들, 수도자들 그리고 모든 정교 양떼에게 보내는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관구장주교 세르기의
성탄절 서신

거룩한 주교님들과, 존엄한 신부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찬란한 이 날 여러분 모두께 그리스도 성탄 대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낮아지셨고, 우리 중 하나가 되셨으며 이로써 그분의 도래를 바라던 모든 이들을 하나로 일치시키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진정한 일치是我们 모두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아버지께 이러한 일치를 청원하셨고, 교회 전체가 이러한 일치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며, 분열 때문에 고뇌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고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기를 바라는”(마태오 5:9) 모든 이들의 마음이 이러한 일치에 관하여 염려합니다. 복음경에서 '평화'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분의 평화'를 사도들에게 주셨고 부활하신 뒤 그들과 만나실 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를 건네셨으며 이러한 까닭에 우리 교회에서는 때 예배 때마다 평화에 대한 바람을 외칩니다.

현재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며, 우리는 평화와 일치를 이루는 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좌절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굳건함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반 없이는 진정한 의미와 영적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끊임 없이 새 소식을 읽고 이에 관하여 토론하며 세간의 압박에 신경 쓰는 데에 자신의 시간을 갖다 바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당을 방문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봉사의 장소에서 정직하게 노고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자선행위를 행하고, 참을성과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며, 좌절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약자들을 도와주며, 공감과 호의 그리고 동정심을 베풀어야 하는데, 여기서 세상에 오신 구세주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께 영육간 능력과 평화 그리고 기쁨, 번창과 오늘 유형의 세계의 무형의 세계 모두가 영적으로 경축하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많은 도우심을 바라며 거듭해서 다시 여러분께 그리스도 성탄 대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관구장주교
동남아시아 총대주교대리 세르기